

Date: 1 Av 5786 (July 15, 2026)

Torah Portion: Devarim

Topic: 불법과 식어가는 사랑, 제 2 부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고백인 알 헤트(AI Chet)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예배자는 거듭하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야훼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이 기도는 영적 차가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두려움은 변질 수 있습니다. 증오는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고상한 태도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가움 역시 공동체적인 회개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악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움을 다시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증오 없는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돌보는 일에 지쳤습니다. 우리의 자비를 새롭게 하소서.’*

셀리콧(Selichot, 용서의 기도)과 **욤 키푸르(Yom Kippur, 대속죄일)** 의식은 엘로힘의 열세 가지 자비의 속성(Thirteen Attributes of Divine Mercy)을 거듭 호소합니다. YHWH 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가혹해질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잔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는 바로 그 대상을 서서히 닮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증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증오를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영구히 닫아걸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법이 거두는 가장 큰 승리는 단순히 의인을 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마음속에 불법 스스로를 복제해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호슈아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배신이 흔해질 때도 신실함을 유지하고, 잔인함이 당연해질 때도 자비를 베풀며, 기만이 이익이 될 때도 진실하고, 세상이 식어갈 때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세상에 대한 해답은 더 차갑게 무장한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법에 대한 해답은 사랑 없음(lovelessness)이 아니며, 증오에 대한 해답은 거룩한 것으로 포장된 증오가 아닙니다.

성경의 영적 흐름을 따라 읽을 때, 마태복음 24 장 12 절은 도덕적 타락에 대한 단순한 예언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핵심 질문은 우리 주변에 불법이 증가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불법이 우리 안의 사랑을 꺼뜨리는 데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통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거룩한 영적 리듬으로 답합니다. ***‘기억하고, 돌아가고, 고백하고, 자비를 입고, 순종을 실천하고, 평화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쉐마**를 반복하는 이유는 사랑이 늘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미다**를 반복하는 이유는 영혼이 끊임없이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반복하는 이유는 완악함이 어느새 마음속에 조용히 다시 틈타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한 간구를 반복하는 이유는 세상이 계속해서 갈등의 언어를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호슈아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제자들에게 그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을 지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단순히 환난을 겪고 살아남은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이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를 뜻합니다. 상처를 입었을지언정 증오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배신을 당했을지언정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불법을 목격할지언정 스스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24 장 12 절과 13 절은 하나의 연속된 가르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이 끝까지 견뎌야 합니까? 물론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나 예호슈아의 말씀이 흘러가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깊고도 개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의 사랑은 끝까지 견디겠느냐?”**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동일한 중심으로 되돌려 보내며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네 마음을 다해 야훼를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분의 토라로 돌아가라. 그분의 자비를 구하라. 평화를 좇으라. 그리고 세상이 차가워질 때, 그 차가움이 너의 차가움이 되게 하지 말라.’*

불꽃을 지키십시오. 야훼께서 마음속에 붙여 주신 사랑은 결코 어둠 속에서 겨우 연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shalom(Shalom).